

# 군사보안 관점에서 본 ‘발지전투’ 패인 분석

김성우\*

## 요 약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국제정세나 국민의 애국심과 단결력, 상대적 전투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프랑스 전역에서의 독일군 기동계획과 전쟁 말기인 1944년 겨울 발지전투를 군사보안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전역은 독일이 아르덴느 산맥을 돌파하여 연합군의 주요부대를 타격했던 것은 동일하나 초기작전은 전격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발지전투는 유사한 기동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했지만 결과는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보운용 능력을 역이용하거나 거부하고 아군은 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처리, 전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것이다. 이는 적보다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장 승리의 요체인가를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프랑스 전역과 발지 전투에서의 독일군 기동계획은 아주 유사하게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작전계획을 기획하고 결심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이다.

## The study of the defeat factor of ‘the Battle of the Bulge’ Focus on Military Security

Kim, Sung Woo\*

### ABSTRACT

It depend on relative combat power, patriotism and cohesion of citizen to victory in the battlefield. This study try to analysis why the Germany army fail ‘the Battle of the Bulge’. The Germany army plan of maneuver to attack the France army was surprise attack in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The Germany army have initiative to make breakthrough Ardennes Ridge. The operation of the Ardennes Offensive Operation and the Battle of the Bulge is the typical features of blitzkrieg shock. However, the results are extremely different. 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al planning and decision the course of action, military security is most important factor. We can see the truth in ‘the Battle of the Bulge’

**Key words : Battle of the Bulge, plan of maneuver, initiative, military security**

접수일(2015년 10월 5일), 수정일(1차: 2015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27일)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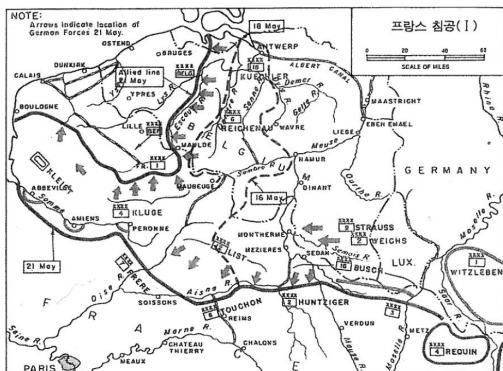
정보활동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운데 타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또는 씨족의 안전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위해 타 집단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때로 정탐꾼을 보내 정찰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의 생성과 함께 정보활동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통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타 국가 또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의 유리시즈의 부하 시논(Sinon)은 거짓으로 트로이왕에게 패해 사로잡혀 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리시즈의 부하들이 트로이군의 승전 기념으로 성안에 들여놓은 목마 안에 숨여 있다가 성문을 열어 일시에 공격함으로써 트로이를 멸망시켰다. 시논은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로이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sup>1)</sup>

초기 독일·프랑스 전역과 발지전투는 독일이 아르덴 산맥을 돌파하여 연합군의 주요부대를 타격했던 것은 동일하나 초기작전은 전격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발지전투는 유사한 기동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했지만 결과는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군사보안과 기동의 측면에서 아르덴 지역에서 이루어진 독일과 프랑스 초기전역과 발지전투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독일·프랑스 전역과 발지전투

《독일·프랑스 전역 요도》 2)



### 2.1. 구데리안 군단의 작전

일반적으로 전쟁의 수준을 전략, 작전적 수준, 전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의 중간수준으로 방법이나 수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역할 중 전술지도는 전술의 상위개념으로서 전술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은 전술적 수준에 비해 훨씬 더 확장된 일련의 전술적 행동들을 다루게 되며, 이러한 영역의 지휘를 담당하는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슬림(William J. Slim) 원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행동에 따르도록 하여 아군의 템포에 맞춰 춤을 추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 지녀야 할 능력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sup>3)</sup>

작전술이란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술적 수단들을 조직 또는 연계시키는 활동으로써 전략목표를 전장에서 행동계획으로 전환하여 군사작전화하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작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전략지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역 및 대규모 작전과 관련되고, 또한 전술의 상위개념으로 전략지침에 부합하는 전투와 교전 등을 실시토록 하는 중간단계로서 상기 두 개념을 상호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프랑스 침공이 결정되었을 때 구데리안 장군이 부여받은 군단의 임무는 독일군의 주공의 최선봉으로서 아르덴 산맥을 통과하여 프랑스 국경요새인 세당을 신속히 돌파하여 영·불해협을 가능한 빨리 도달하여 연합군을 남북으로 분리시켜서 각개격과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슈타인 장군이 지적한대로 신속하게 연합군의 군사 지도자들이 자신의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략예비를 전환할 여유를 주지 않을 만큼 기갑부대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속도로 아르덴 산맥을 통과하고 뮤즈 강을 도하함으로써 영·불해협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구데리안 장군은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다. 1940년 초 독일 수상관저에서 개최된 프랑스 공격을 위한 회의에서 아르덴 산맥 돌파와 뮤즈 강 도하에 대한 논의

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구테리안 장군은 자신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넷째 날에 세당을 점령 후 뮤즈 강에 도착할 것이며, 다음 날에 그 강을 도하하여 저녁까지 강의 대안에 교두보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up>5)</sup> 이러한 계획을 확신한 것은 만슈타인 계획이 뒷받침했지만 구테리안 장군의 작전술적인 사고방식이 히틀러의 전략적 구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테리안의 구상이 가능한 것은 당시의 독일군 및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대비하면서 살펴보면 그 달성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군은 독일의 공격이 제1차 세계대전시의 공격방법 및 방향과 동일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독일의 공격계획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어위주의 계획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연합국간 협조 등의 문제로 5차레나 변경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최종적인 5기 계획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및 벨기에군으로 연합군을 편성하고 독일군의 공격을 네덜란드의 델강 선에서 저지한다는 계획으로 심지어 당시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프랑스의 제7기갑군을 네덜란드의 브레다까지 진출시켜 공격하는 독일군의 추후방을 공격한다는 공세적인 방어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sup>6)</sup>

이에 반해 독일은 1940년 초까지 솔리펜 식의 할더(Halder) 계획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할더 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A집단군 참모장인 만슈타인 장군의 안에 따라 아르덴스와 세당을 돌파하는 전격진으로 연합군을 섬멸하고 전 프랑스를 석권하는 계획으로 변경, 승인되었다. 이러한 독일군의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구테리안 군단은 프랑스군의 주력이 세당 방면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10일 이내에 세당 지역의 뮤즈 강을 도하하여 프랑스군 지휘부의 의지와 예비대 운용을 마비시켜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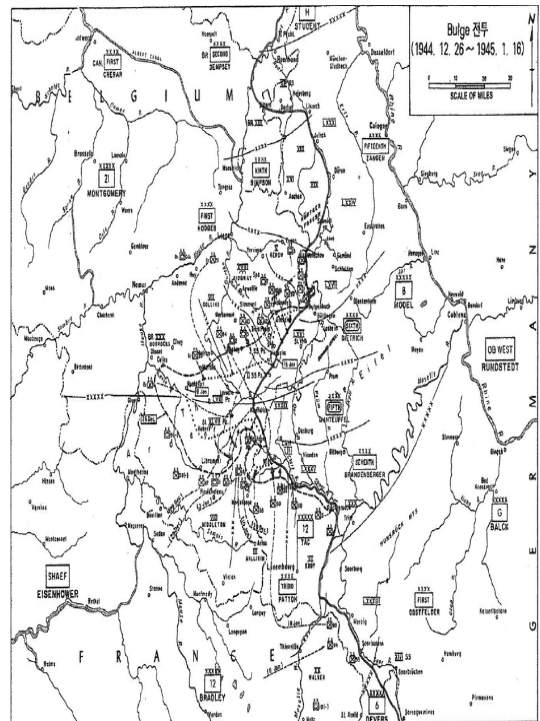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결정적인 작전을 위해 독일군은 연합군을 완벽히 기만시켜야 했다. 이러한 기만작전의 성공을 위해 첫째, 연합군은 그들의 계획대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주력과 주 예비부대가 집중되어야 했고, 둘째는 연합군이 독일군의 주공을 판단한 후 전력을 전환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주력부대가 일정지역까지 신속히 전진해야 했다.

## 2.2. 발지전투

히틀러는 1944년 9월 중순에 아르덴 숲을 통과하여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 주력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뮤즈 강까지 도달한 뒤 북서쪽의 앤티워프와 브뤼셀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작전개시로부터의 신속한 이동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뮤즈 강을 넘는다면 극적으로 개선되어 해안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작전은 연합군 첩보본부에 라인란트의 방어작전과 오인시키기 위해 “라인을 수호하라”(Wacht am Rhein)고 이름을 붙였다.

4개군의 작전투입이 결정되었다. 요제프 디트리히가 이끄는 SS 6기갑군은 1944년 10월 26일에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 군에는 무장친위대의 정예사단 1 SS 기갑사단과 12 SS기갑사단이 참가했다. 그들은 주요 공격부대로써 북부공격을 감행할 예정이고, 목표는 앤티워프의 확보였다.

《발지전투 요도》 7)



한스 폰 만토이펠이 이끄는 5 기갑군은 중앙공격을 담당해 브뤼셀 확보가 목표였다. 에리히 브란덴베르크가 이끄는 7군은 측면지원과 남부공격을 담당하였다. 15군은 재편성되어 최북부에 배치되었다. 임무는 이 지역의 미군 세력을 붙잡아 공격에 대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공격의 성공에는 3가지 요점이 요구되었다. 공격은 완전히 기습이어야 한다는 점. 악천후여야 한다는 점. 연합군의 제공권을 무효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해야 하는 점. 시기는 겨울 중에도 혹설기를 설정한다. 신속한 진격이어야 한다는 점. 모틀 원수는 뮤즈 강까지 4일 만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공격에 앞서 독일군의 부대 이동을 연합군은 확인하지 못했다. 프랑스 해방에서는 레지스탕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나, 연합군이 독일 국경에 도달한 당시로써는 그런 정보를 기대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에니그마에 의해 암호화된 무선통신으로 지령을 내리는 독일군을 감청해 울트라 암호 해독기로 해독하였으나, 독일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령이 전화와 텔레프린터를 사용하여 송수신되었다. 또한 다가올 공세를 생각해 무선 교신의 특별차단지령으로 교신이 감소하였다.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독일 국방군 내에서 숙청으로 독일군의 통신보안은 재강화되어 정보누출의 감소가 현저해졌다. 또한 가을의 짙은 안개와 날씨는 연합군의 정찰기가 지형을 정찰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초기 작전 ‘독일·프랑스 전역’에서의 독일의 승리원인은 아르덴 산림지대를 통한 기습작전의 성공과 완벽한 전격전의 수행, 전투력의 집중, 공정부대 및 제5열의 활동, 공중우세권 장악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프랑스 군의 마지도선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수동적 전쟁준비와 방어 제일주의 사상, 주공판단 실패, 전차를 단순히 보병지원용으로 사용했고 분산 운용했으며, 연합군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sup>9)</sup>

제2차 세계대전 초기작전인 ‘독일·프랑스 전역’과 후기 작전인 ‘발지전투’에서 독일의 기동계획은 유사했으나 전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작전계획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상이했으며 국제적인 상황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발지전투가 실패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944년 12월 16일 독일군이 갑자기 아르덴느 방면

에서 공격을 개시해 왔는데 히틀러는 당시 상화에서 볼 때 동부전선은 비스툴라강 선에서 소강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탈리아 방면에서도 고딕선에서 교착된 상황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마지막 카드를 아르덴느 지역에 던진 것이다.<sup>8)</sup>

### 3. 발지전투 패인

공격에 앞서 독일군의 부대 이동을 연합군은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군은 프랑스 해방 전투에서는 레지스탕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나, 연합군이 독일 국경에 도달한 당시로써는 그런 정보를 기대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에니그마에 의해 암호화된 무선통신으로 지령을 내리는 독일군을 감청해 울트라 암호 해독기로 해독하였으나, 독일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령이 전화와 텔레프린터를 사용하여 송수신되었다. 또한 다가올 공세를 생각해 무선 교신의 특별차단지령으로 교신이 감소하였다. 독일 국내에 있던 전화나 전보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독일 국방군 내에서 숙청으로 독일군의 통신보안은 재강화되어 정보누출의 감소가 현저해졌다. 또한 가을의 짙은 안개와 날씨는 연합군의 정찰기가 지형을 정찰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초기 작전 ‘독일·프랑스 전역’에서의 독일의 승리원인은 아르덴느 산림지대를 통한 기습작전의 성공과 완벽한 전격전의 수행, 전투력의 집중, 공정부대 및 제5열의 활동, 공중우세권 장악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프랑스 군의 마지도선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수동적 전쟁준비와 방어 제일주의 사상, 주공판단 실패, 전차를 단순히 보병지원용으로 사용했고 분산 운용했으며, 연합군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sup>9)</sup>

제2차 세계대전 초기작전인 ‘독일·프랑스 전역’과 후기 작전인 ‘발지전투’에서 독일의 기동계획은 유사했으나 전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작전계획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상이했으며 국제적인 상황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발지전투가 실패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1 히틀러의 망상

1944년 9월이 되자 독일의 사상은 동서에서 밀려오는 소련군과 연합군을 겨우겨우 막아내기에 급급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사실 어느 독일 위장자나 지휘관도 감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독일의 패배는 명약관화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현 상태에서 지연전을 펼치며 정치적으로 종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히틀러는 공세를 지시했다. 그가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 Oberkommando der Wehrmacht)를 방문하여 서부전선의 전황을 보고받았을 때 작전부장 요들(Alfred Jodl)이 지도를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현재 연합군의 취약지역은 아르덴느(Ardennes)입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한 마디에 히틀러는 전쟁 초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예상외의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지난 1940년 초여름에 독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험준한 산악지대인 아르덴느 지역으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기습 돌파시켜 영·불 연합군을 일거에 포위격멸하고, 불과 7주 만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는 기적을 연출하였다. 히틀러는 엉뚱하게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독일에게 공세를 실시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받은 군부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당장 지상군 병력이나 장비도 부족하였지만 공세를 펼치기 힘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1940년과 달리 지상군을 완벽하게 보호할 공군이 없었다.

### 3.2. 무모한 기동으로 인한 군사보안 노출

전쟁초기에 독일은 이른바 전격전(Blitzkrieg)으로 명명된 전쟁의 새로운 형태를 완성하였는데 여기서 기갑부대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바로 진격할 곳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해 버린 공군이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 공군은 단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수준까지 소모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총통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망상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이 보유한 최후의 예비전력과 물자가 총동원되었다. 작전

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지구상에 히틀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무모하였으나 군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2월이 되자 30만 대군이 은밀히 집결하였고 여기에는 무적의 전차로 명성이 자자한 콘니히스티그(Konigstiger)를 비롯한 1,000 여대의 전차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당시 독일이 보유한 마지막 기갑전력이였다. 비록 1940년 6월과 비교하면 수량이 부족하지만 전차의 질은 오히려 연합군 측에서 맞상대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수준이였다. 이때까지 상황은 기습을 할 수 있는 군사보안이 유지되었다.

특히 독일군은 러시아의 지옥과 같은 통토에서 3번의 겨울을 보냈으나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한 동계 전투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독일은 기갑전력의 우월성과 연합군의 방심에 기대를 걸었다. 독일군은 점차 그들의 작전기도가 노출됨으로서 점차 공군력을 장악한 연합군으로부터 기갑부대 기동이 노출되고 공중정찰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의 군사보안대책은 모두 와해됨으로서 연합군은 손바닥 보듯이 전투를 할 수 있었고 반면에 독일군은 기계화부대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 3.3. 공중우세권과 정찰활동

독일군은 결국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독일공군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피아 모두 공군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공세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활용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일상적인 날씨였다. 독일은 서부유럽에서 12월 중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작전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연말에 아이슬란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단이 대륙 방향으로 확장하면서 다습한 대서양을 만나 거대한 농무를 발생시키는데 보통 1주일 정도 지속된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는 공군의 작전을 그의 불가능하게 한다. 독일군은 이 시기를 노려 작전을 종결 짓고자 했고 사실 그 이상 돌격 능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

드디어 안개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군에 전달되자 12월 16일 새벽 5시 30분 숲속에 있던 독일군의

전차들은 일제히 기동을 시작하였다. 이른바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이라고 일컫는 발지전투(Battle of Bulge)가 시작된 것이다. 초전의 기습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독일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연합군은 혼비백산했다.

하지만 불의의 습격을 당한 미군의 혼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전열을 정비하여 독일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1940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종말을 고한 프랑스군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미군은 충분한 예비기가 있었고 신속히 부대의 이동 전환 및 전개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독일군의 기도가 노출되지 않아 기습이 가능했으나 후기로 들어서면서 연합군 공중정찰을 활성화하여 독일군 부대 위치가 노출과 기동이 관측됨으로서 독일군의 기동에 따라 조치해야 할 군사보안 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 4. 전쟁의 결과 비교

발지전투에서 결국 독일의 진격은 둔화되었다. 12월 23일이 되자 저기압이 몰려나고 안개가 걷히며 하늘이 쾌청해졌다. 연합군은 이 날부터 12월 27일까지 하루에 무려 5,000소티 이상 출격하여 독일군 머리 위에 폭탄세례를 퍼부었다. 결국 너무 깊숙이 진격한 독일5기갑군은 배후가 절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정찰로 인한 독일군의 기동과 군사보안 조치가 무력화되었다. 1945년 1월 5일 최선두 부대가 역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독일군은 후퇴하였다. 전쟁 내 후퇴라는 단어를 혐오하던 히틀러도 어쩔 수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초전의 기습이 성공적이어서 히틀러는 흥분했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이었다. 독일이 공세를 펼치리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군이 잠시 당했을 뿐이었다.

독일은 발지전투에서 남아있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있었던 최초의 동계전투는 강렬하고 짧게 막을 내렸다. 발지전투는 연합군의 공세를 약 6주 정도 연기시킨 반면 독일의 패망을 6개월 앞당겼다는 마블 정리될 만큼 작전의 구상부터 시

행까지 너무 무모한 것이었다.

이 전투로 약 6주간 연합군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연합군 76,980명 손실에 비해 독일군 70,000명의 사상자와 50,000명의 포로, 전차 600대, 항공기 1,600대 손실로 독일군의 예비대가 완전 소멸되었다.<sup>10)</sup>

#### 5. 결론

군 작전환경 및 군사보안과 정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작전환경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주변의 상황으로 여기에는 국가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제반 고려사항, 작전지역, 주민의 성향, 적의 구성 및 임무, 무기체계 등이 포함된다.<sup>11)</sup> 군사보안과 정보작전에 관련되는 작전환경 요소로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위협, 첨단화된 IT 기술과 이를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전쟁수행방법의 변화, 일반 국민의 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있다.

작전간에 이루어지는 군사보안은 작전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정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작전환경과 정보환경의 변화가 정보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올바른 정보 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보작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 군사보안 우위를 달성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된 작전 및 정보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보안 우위란 상대적인 것으로 적보다 우월한 정보능력을 확보하여 큰 제약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sup>12)</sup>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보운용 능력을 역이용하거나 거부하고 아군은 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처리, 전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것이다. 이는 적보다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장 승리의 요체인가를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프랑스 전역과 발지 전투에서의 독일군 기동계획은 아주 유사하게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작전

계획을 기획하고 결심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과 정보 수집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1]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서울: 박영사, 2006), p.23.
- [2]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요도, 황금알, p.99
- [3] 신태복 역, “전술과 작전적 수준의 전쟁”, 군사과학자료 133호, 1987. p.127
- [4] 육군본부, 교참1001 「작전술」, pp.21-22
- [5] 김정오 역, 기계화부대장, 한원출판사, pp.161-162
- [6] 육군사관학교, 전개서, pp.289-295
- [7] 육군사관학교, 상계서, p.121
- [8] 노병천, 도해세계전쟁사, 연경문화사, p.404
- [9] 노병천, 상계서, p.300
- [10] 노병천, 상계서, p.408
- [11] 육군본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2006), p.490.
- [12] 육군본부 「야교 3-26 정보작전」 (2011), p.9.

## [저자소개]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tiger@tu.ac.kr